

노년기 여성의 건강상태와 우울정도가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 성 아

진주국제대학교 미용패션학부 전임강사

I. 서 론

현대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명증가로 인한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고안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 14세 이하 연소층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70년대는 7.2%에서 1999년에는 31.4%로 노령화 지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¹⁾. 한편 우울이란 정서와 동기에 이상이 있는 심리장애로서, 상황에 관계없이 늘 기분이 슬프고 가라앉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활기에 차있고 들떠 있는 심리상태를 말한다²⁾.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특히 소득원의 상실에 의한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에 따른 변화, 노령에 의한 건강 악화 등을 경험하면서 소외감이나 고독감의 발생 등이 있다³⁾. 수명의 연장과 노령화는 건강 및 활동의 저하, 우울증, 소외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⁴⁾. 실제로 노인의 1/3 정도가 약한 우울증, 10% 이상이 심한 우울증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러한 우울증상이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고 외모변인과 관련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외모증진은 빈곤한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데, Tompson⁶⁾은 정신병 환자들은 의상 및 화장 등으로 신체적 외모가 개선됨으로써 외모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고 새로운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 의복이 환자의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적절한 의복 및 외모증진은 심리적 안정감이나 사회적 불안감을 외모향상에 의한 심리치료가 가능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 상실감을 회복시켜 다양한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인은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타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발전한다⁷⁾. 그리고 노인 여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즉 외모

장식은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잘 정돈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므로⁹⁾, 외모관심이나 신체장식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근심, 침울, 무력감,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는 것도 노년기 여성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상태와 건강정도를 조사하여 외모관심과 외모장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나아가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기초 자료로 제시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여성의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를 조사한다.

둘째,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우울정도에 따른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넷째, 인구 통계적 변인, 건강상태, 우울정도, 외모관심이 외모장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측정 도구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우울정도, 외모장식, 외모관심, 건강상태, 인구 통계적 변인을 조사하였다. 우울정도는 정인파¹⁰⁾이 개발한 30문항의 한국형 노인 우울검사를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정서적 불편함, 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관심과 활동저하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정도는 우울의 전체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문항간의 상관관계가 낮고 신뢰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한 27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α 신뢰도는 .86이었다. 우울의 세 집단은 상부 25%, 하부 25%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였는데, 점수분포 상에서 상부 25%는 우울이 상집단, 중간 50%는 중집단, 하부 25%는 하집단으로 칭하였다. 상, 중, 하 집단의 점수범위는 .19~.37(26.5%)점, .41~.52(47.9%)점, .56~.74(25.6%)점이었다. 측정방법은 예, 아니오의 진위형 척도로 하였다.

외모장식은 화장정도와 미용실 방문하는 정도의 2개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화장정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에 1점, '기초화장'에 2점, '1가지 색조화장'에 3점, '2개의 색조화장'에 4점, '3개 이상의 전체적인 화장'에 5점을 주었다. 미용실방문정도는 '전혀 가지 않는다'에 1점, '1년에 2번 정도 간다'에 2점, '3-4달에 한번 정도 간다'에 3점, '2달에 한번 정도 간다'에 4점, '1달에 1번 정도 간다'에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건강상태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한 상태를 5점 Likert형으로 측정하였다. 인구 통계적 변인은 연령, 학력, 배우자동거여부, 용돈을 조사하였다.

2. 표집대상,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본 조사는 2003년 9월에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진주시 및 진주시 근교에 거주하는 60~70대 노년기 여성으로서 임의 표집 하였으며, 11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분포를 보면, 연령은 60대가 62.4%, 70대가 37.6%였으며, 학력은 무학이 22.2%, 한문서당 및 초등졸이 34.2%, 중졸이 15.4%, 고졸 이상이 26.2%였다. 배우자 여부는 동거가 53.8%, 이혼 혹은 사별이 46.2%였다. 용돈은 10만원 미만이 36.8%, 10-15만원 미만이 33.3%, 20만원이상이 29.9%였다. 통계분석방법은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 경로모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결론

첫째, 노년기 여성의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외모관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외모관심은 70대 보다 60대가 더 높게 나타나, 60대가 70대보다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외모관심, 화장, 미장원 방문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학력에 따른 외모관심과 화장에서는 중졸 이상의 학력의 노년기 여성이 그 이하의 학력 집단보다 외모관심과 화장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미장원 방문정도는 고졸 이상의 집단이 미장원 방문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에 따라서는 외모관심, 화장, 미장원 방문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용돈이 20만원이상 집단이 그 이하의 집단보다 외모관심, 화장, 미장원방문정도가 높게 나타나, 용돈이 많은 노년기 여성이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외모장식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배우자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우울정도, 외모관심, 외모장식의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여성의 경우 비교적 연령이 낮은 60대 여성이 외모에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력이나 용돈은 사회경제적인 계층과 관련이 있어 비교적 학력이 높고 용돈이 많은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활동이 높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외모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므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정도,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의 차이에서는 외모관심과 화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건강이 보통이거나 건강한 집단이 나쁜 집단보다 외모관심과 화장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이 나쁜 사람의 경우는 외모치장보다는 자신의 신체가 불편하므로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힘들어 나타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우울정도에 따라서는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인구 통계적 변인(연령, 학력, 배우자동거여부, 용돈), 건강상태, 우울정도, 외모관심이 외모장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화장정도는 외모관심과 학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2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50.5%였다. 즉 외모관심이 높고 학력이 높은 노년기 여성일수록 화장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 용돈, 건강상태는 외모관심을 통해 화장정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미장원 방문정도는 우울정도, 배우자 여부, 용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3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19.2%였다. 즉 용돈이 많고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며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미장원을 방문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은 우울정도를 통해 미장원 방문정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은 학력, 건강상태, 용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3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0.7%였다. 즉 용돈이 많고 학력이 높으며 건강할수록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정도는 연령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1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6.1%였다. 즉 연령이 낮은 노년기 여성일수록 우울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울, 건강상태는 노인의 외모관심 및 외모장식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고, 특히 노인의 용돈이나 학력과 같은 경제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인은 노인의 심리상태와 외모변인에 유의한 영향이 있어 노인의 심리 및 외모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1) 경향신문 (1999년, 12월 28일). 통계청 '99 사회지표.
- 2) 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윤진, 정찬섭, 오경자(1996).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법문사, p.406.
- 3) 송대현, 윤가현(1989). 노년기의 고독감 I. 한국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9), pp.64-78.
- 4) 윤종률(2003). 노인에서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가정의학회지, 24(4), pp.305-308
- 5) 조선일보 (2003년, 10월 21일). 노인 65%가 초조성 우울증세.
- 6) Thompson, T. (1962). Fashion Therapy. Journal of Home Economics, 54(10), pp.835-836.
- 7)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 8) 이명희, 이은실(1997).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6), pp.1072-1081.
- 9) 이충순, 한은선, 황태연(1997). 현대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 10) 정인과, 박동일, 조수행, 이현수(1997). 한국형 조인우울검사 표준화연구. 노인 정신의학, 1(1), pp.62-72.